

The Effects of Event Centrality on Complicated Grief and Posttraumatic Growth among Young Adults with Parental Bereavement during Adolescence: The Mediating Effect of Traumatized Self-system and Meaning Reconstruction

Jieun Kwon Sungeun You[†]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Korea

This study examined the role of cognitive factors in complicated grief and posttraumatic growth in young adults who experienced parental death during adolescence. Specifically, using a three-month short-term longitudinal design, we examined the mediating role of meaning reconstruction and traumatized self-system in the effect of event centrality on complicated grief or posttraumatic growth. Adults aged 19 to 29 years who experienced parental death during adolescence were recruited for this study. Two hundred participants responded to the baseline online survey (Time 1), and 150 completed a follow-up survey after three months (Time 2). As expected, event centrality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complicated grief or posttraumatic growth at Times 1 and 2. The test of a mediation model for complicated grief indicated that neither traumatized self-system nor meaning reconstruction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vent centrality and complicated grief at Time 2. However, higher levels of traumatized self-system were cross-sectionally associated with complicated grief at Time 1. Conversely, both traumatized self-system and meaning reconstruction significant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vent centrality and posttraumatic growth at Time 2. These findings suggest that reducing traumatized self-system and enhancing meaning reconstruction could help develop posttraumatic growth whereas such intervention may not help reduce complicated grief longitudinally.

Keywords: complicated grief, posttraumatic growth, parental bereavement,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아동청소년기에 겪는 부모의 죽음은 이 시기 삶의 많은 변화와 함께 이후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Mallon, 2011). 부모와의 사별은 어떠한 외상보다 심각하게 개인의 삶과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며(Calderwood, 2011; Maier & Lachman, 2000) 급작스러운 또는 예측 가능한 사별 모두 자녀의 삶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상실경험이다(Taku, Calhoun, Cann, & Tedeschi, 2006). 아동청소년기 사별 경험은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슬픔, 분노, 그리움, 우울, 외

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서적인 부적응을 야기하며 극단적인 경우 자살행동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Gray, Weller, Fristad, & Weller, 2011; Taku et al., 2006). 또한 사별을 경험한 아동의 10% 정도는 사별로 인한 비애 증상의 강도나 지속 기간이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정상적인 범주를 넘어서는 복잡성 사별비애(complicated grief)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arrisson & Harrington, 2001; Hayslip, Pruett, & Caballero, 2015; Melhem, Porta, Shamseddeen, Payne, & Brent, 2011). 복잡성 사별비애는 사별로 인한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대인관계, 의미상실, 과도한 슬픔 및 생활방식의 변화 등의 심리적 손상으로 이어지는 현상으로 Prigerson 등(1995)이 제안한 개념이다. DSM-5에서는 이를 지속성 복합 애도장애(Persistent complex bereave disorder)라는 진단명으로 Section III의 추후 연구되어야 할 준거에 포함하였다(American

[†]Correspondence to Sungeun You,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1 Chungdae-ro, Seowon-gu, Cheongju 28644, Korea; E-mail: syou@chungbuk.ac.kr

Received Dec 03, 2020; Revised Feb 22, 2021; Accepted Feb 25, 2021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7S1A5B8059946).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부모와 사별한 아동과 청소년은 다양한 부적응적 사별반응을 보이기도 하지만, 역경으로 인한 심리적 성장과 같은 긍정적 결과를 얻기도 한다(Salloum, Bjoerke, & Johnco, 2019). Tedeschi와 Calhoun (1995)은 중요한 외상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주관적으로 지각하게 되는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외상 이전의 적응수준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을 넘는 심리적 수준의 변화와 기능 측면에서의 질적인 변화를 포함한다(Calhoun & Tedeschi, 2004). 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부모 사별이후 대처능력의 향상, 더 나은 대인관계, 삶에 대해 감사하는 태도 등에서 자신들이 성장했다고 보고하였다(Ens & Bond, 2005; Hogan & Schmidt, 2002; Schaefer & Moos, 2002).

연구자들은 사별과 같은 외상 경험의 결과로 나타나는 적응과 부적응에 대해 인지적 해석이 미치는 영향을 주목하였다. 이러한 인지적 변인 중 사건중심성은 Berntsen과 Rubin (2006)이 제안한 개념으로 자신의 정체성이나 경험을 외상적 사건 중심으로 해석하는 인지적 경향성을 말한다. 사건중심성은 개인이 스트레스 경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하며(Tedeschi, Calhoun, & Cann, 2007), 외상 경험 이후의 부적응과 심리적 성장을 모두 예측한다고 보고하였다(Gehrt, Berntsen, Hoyle, & Rubin, 2018; Groleau, Calhoun, Cann, Tedeschi, 2013). 그렇다면 사건중심성이 심리적 부적응과 성장으로 가는 과정에 관여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이 과정에 기여하는 매개변인으로 의미재구성과 외상화된 자기체계에 주목하였다.

Neimeyer (2000)는 상실이나 사별은 기존의 의미구조와 불일치하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게 되며, 그러한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무너져버린 인생의 질서와 안전 및 예측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 일어난 사건의 이유와 의미를 찾으려는 인지적 노력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 의미재구성은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애도반응의 핵심요소(Gillies & Neimeyer, 2006)이며, 사별 경험에 대한 의미부여가 사건중심성과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ellet, Neimeyer, & Berma, 2018). 또한 삶의 의미 및 삶에 대한 성찰은 외상후 성장을 예측하는 변인이었으며(Taku et al., 2006), 사별 후 외상후 성장에 관한 논문들을 살펴본 개관논문에서 의미재구성은 외상후 성장에 관여하는 주요 변인 중 하나였다(Michael & Cooper, 2013).

한편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 과제는 자아정체성의 확립이다(Erikson, 1963). Habermas와 Bluck (2000)은 청소년기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라는 깊은 고민과 함께 인간이 처음으로 자신이 어떻게

살지를 생각하며 일관성 있는 '삶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시기라고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부모의 죽음은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사별 경험에서 유발된 안전감의 결핍으로 정체성 형성 과정이 손상될 수 있다(Freeman, 2005; Worden & Silverman, 1996). 본 연구에서는 Jang과 Ahn (2011)이 반복적인 대인간 외상으로 변화된 개인의 자기체계를 설명하기 위해 제안한 개념인 외상화된 자기체계(traumatized self-system)를 매개변인 중의 하나로 검증하였다. 부모와의 사별이 반복적인 대인간 외상은 아니지만, 정체성 형성이라는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다. 또한 외상화된 자기체계 개념이 포함하고 있는 부정적 자기감, 죄책감, 수치심, 자기조절 손상, 관계적 자기 손상 등의 내용(Jang & Ahn, 2011)은 애도과정에서 청소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인 반응과 관계가 있다. 한편 Im과 Kwon (2013)은 관계상실 당시에는 자기비난, 타인비난 등과 같은 부적응적인 대처방략으로 분류된 변인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성장에 수반되는 요소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점을 제안하였다. 또한 Calhoun, Cann과 Tedeschi (2010)는 외상후 성장에 이르는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외상의 희생자라는 인식에서 생존자로서의 인식의 변화라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외상화된 자기체계를 사건 중심성이 부모사별 이후 복잡성 사별비에 또는 외상후 성장으로 가는 경로에 기여하는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Boals와 Schuettler (2011)가 '양날의 검'이라 표현한 사건중심성이 복잡성 사별비에와 외상후 성장으로 가는 경로에서 외상화된 자기체계와 의미재구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복잡성 사별비에와 외상후 성장은 상호 관련이 높지만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라는 선행 연구(Groleau et al., 2013)를 기반으로 두 개의 결과 변인에 대해 별개의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검증하였다.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횡적연구수행으로 변인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지만, 매개효과는 시간적 흐름을 포함한 개념이기 때문에 횡적연구로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변인 간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많을 경우 횡적 연구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주요변인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선행연구들은 아직 충분하지 않기에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3개월 단기종단연구를 설계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사건중심성이 복잡성 사별비에에 미치는 영향에서 외상화된 자기체계는 정적으로, 의미재구성은 부적으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2. 사건중심성이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외상화된 자기체계는 부적으로, 의미재구성은 정적으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청소년기에 부모 사별을 경험한 만 19-29세의 성인으로 온라인 설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연구대상자를 모집하였다. 대상자들은 설문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연구참여 동의를 한 후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였으며 설문을 마친 후에 현금화할 수 있는 소정의 포인트를 지급받았다. 무성실하고 불성실한 자료를 관리하기 위해, 평균응답시간보다 현저히 짧거나, 일정 패턴으로 응답하거나, 동일 IP에서 여러 계정으로 접속하는 응답을 제외하였다. 1차 설문(Time 1)은 2019년 11월에 실시하였고 총 200명(남 81명, 여 119명)이 참여하였다. 이 중 3개월 후에 실시된 2차 설문(Time 2)에는 150명(남 57명, 여 93명)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자 소속 기관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

측정변인 및 도구

1차 설문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사별관련 변인, 외상후 성장, 복잡성 사별비에, 그리고 인지적 변인으로 사건중심성, 외상화된 자기체계, 의미재구성을 측정하였다. 2차 설문에서는 외상후 성장과 복잡성 사별비에를 측정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사별관련 변인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 성별과 연령을 측정하였고, 사별관련 변인으로 사별대상, 사별원인, 사별 당시 나이, 사별예상 정도, 사별과 관련된 치료경험을 알아보았다. 사별예상정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여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예상하지 못했다', '보통이다', '조금 예상했다', '확실히 예상했다'로 측정하였다. 치료경험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개인심리치료, 집단심리치료, 자조집단, 경험 없음 중에서 중복 체크할 수 있게 하였다.

사건중심성 척도(Centrality of Event Scale)

사건중심성 척도는 개인이 경험한 외상 사건에 대한 기억을 중심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다른 경험을 이해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척도이다(Berntsen & Rubin, 2006). 이 척도는 총 20문항(예, '나는 내 자신과 세상을 이 사건에 비추어 생각한다')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에 대해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3점: 보통이다, 4점: 대체로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게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Cho와 Lee (2011)가 타당화한 한국어 버전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건중심성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4였다.

외상화된 자기체계 척도(Traumatized Self-System Scale)

외상화된 자기체계 척도는 반복적인 대인간 외상 경험에 의한 자기체계 손상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Jang과 Ahn (2011)이 개발한 자기보고식 측정도구이다. 총 58개의 문항(예, '나에게 무엇인가가 잘못되어서 고칠 수 없을 것 같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0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된다. 본 연구에서 외상화된 자기체계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97이었다.

애도에 대한 의미 재구성 척도(Grief and Meaning Reconstruction Inventory)

애도에 대한 의미 재구성 척도(Gillies, 2005)는 상실 경험에 대한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자기 보고식 척도이다. 이 척도는 총 29문항(예: '이 상실 이후, 나 자신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에 대해 5점 Likert 척도(0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Choi와 Ahn (2013)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애도에 대한 의미 재구성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72였다.

복잡성 사별비에 척도(Inventory of Complicated Grief)

Prigerson 등(1995)이 개발한 복잡성 사별비에 척도는 사별 후 정상적이고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애도 수준을 벗어나 지속적인 심리적 부적응을 야기하는 비애 반응을 측정하는 19개 문항(예: '고인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평상시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힘들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5점 Likert 척도(0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드물게 그렇다, 2점: 가끔 그렇다, 3점: 종종 그렇다, 4점: 항상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Kim과 You (2019)가 한국어로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복잡성 사별비에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1차 설문에서는 .96, 2차 설문에서는 .97이었다.

한국판 외상후 성장척도(Korean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K-PTGI)

본 연구에서는 Tedeschi와 Calhoun (1996)이 개발한 외상후 성장척도를 Song, Lee, Park과 Kim (2009)이 한국판으로 타당화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외상후 성장척도는 외상 경험 후 긍정적인 변화

의 정도를 자기보고 형식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Tedeschi와 Calhoun (1996)이 개발한 척도는 총 21문항이고, Song 등(2009)이 타당화한 한국판 척도는 16문항(예: ‘나는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 지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이다. 각 문항에 대해 6점 Likert 척도 (0점: 경험하지 못함, 1점: 매우 적게 경험, 2점: 조금 경험, 3점: 보통 경험, 4점: 많이 경험, 5점: 매우 많이 경험)로 평정하게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 후 긍정적인 변화를 많이 경험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판 외상후 성장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1차 설문에서는 .94, 2차는 .95였다.

분석방법

통계 분석은 SPSS ver.27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기술통계 분석을 제외한 모든 분석은 1차, 2차 설문에 모두 참여한 15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분석하였다. 둘째, 연구에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각 척도의 문항 내적 합치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주요 변인 간 상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SPSS Macro Process model 80을 이용한 부트스트랩(Bootstrap) 검증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랩 샘플은 5,000개를 지정한 후 신뢰구간은 95.0%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변인들을 평균중심화 하여 투입하였고, 다중공선성을 판단하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계수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확인하였다.

결 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기술통계

1차 설문(Time 1)에 참여한 200명 중 75%에 해당하는 150명이 2차 설문(Time 2)에 참여하였다. 1차 설문 참여자의 평균연령은 26.06세($SD=2.49$), 2차 설문 참여자의 평균연령은 25.91세($SD=2.60$)였다.

여성에게 사별후 부적응 반응인 복잡성 사별비애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Strebe & Schut, 2007)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복잡성 사별비애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148]=1.12, n.s.$). 또한 2차 설문 참여집단과 미참여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선행중단연구(Brent & Melhem, 2012; Levi-Belz, 2019)을 참고하여 집단 간의 인구학적 변인(성별 $\chi^2 = .25, n.s.$; 나이 $t[198]=1.37, n.s.$), 사별관련 변인(사별기간 $t[198]=.38, n.s.$), 주요심리적 변인(복잡성 사별비애 $t[198]=.39, n.s.$; 외상후 성장 $t[198]=-.20, n.s.$)

에서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므로 나타났다. 1차와 2차 설문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와 사별 관련 특성 정보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복잡성 사별비애(1차)와 외상후 성장

Table 1. Sociodemographic and Bereavement-related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Time 1 N=200 n (%)	Time 2 N=150 n (%)
Gender		
Men	81 (40.5)	57 (38.0)
Women	119 (59.5)	93 (62.0)
Age		
19-24	50 (25.0)	32 (21.3)
25-29	150 (75.0)	118 (78.7)
Relationship to the deceased		
Father	135 (67.5)	101 (67.3)
Mother	56 (28.0)	42 (28.0)
Both father and mother	9 (4.5)	7 (4.7)
Age at parents' death		
≤ 12 (elementary school)	12 (6.0)	9 (6)
13-15 (middle school)	98 (49.0)	69 (46)
16-18 (high school)	90 (45.0)	72 (48)
Time since death (years)		
1-5	15 (7.5)	11 (7.3)
6-10	77 (38.5)	58 (38.7)
11-14	90 (45.0)	68 (45.3)
≥ 15	18 (9.0)	13 (8.7)
Cause of parental death		
Chronic disease	71 (35.5)	65 (43.3)
Acute disease	30 (15.0)	20 (13.3)
Accidental death	73 (36.5)	51 (34.0)
Suicide	11 (5.5)	9 (6.0)
Homicide	1 (0.5)	1 (0.7)
Other	14 (7.0)	4 (2.7)
Expectation of bereavement		
Never expected	124 (62.0)	87 (58.0)
A little unexpected	35 (17.5)	28 (18.7)
Neither	14 (7.0)	11 (7.3)
A little expected	23 (11.5)	20 (13.3)
Entirely expected	4 (2.0)	4 (2.7)
Treatment history		
Psychiatric treatment	37 (18.5)	29 (19.3)
Individual psychotherapy	44 (22.0)	32 (21.3)
Group therapy	6 (3.0)	4 (2.7)
Self-help group	4 (2.0)	4 (2.7)
None	109 (54.5)	81 (54.0)

(1차)의 상관은 $r = .34$ ($p < .001$)였고, 복잡성 사별비에(2차)와 외상 후 성장(2차)의 상관은 $r = .42$ ($p < .001$)였다. 사건 중심성과 복잡성 사별비에 1차, 2차의 상관은 각각 $r = .62$ ($p < .001$), $r = .54$ ($p < .001$), 외상후 성장 1차, 2차의 상관은 각각 $r = .33$ ($p < .001$), $r = .20$ ($p < .05$)였다.

사별관련 변인과 주요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별기간과 복잡성 사별비에(1차), 사건중심성, 의미재구성의 상관은 $r = -.18$ ($p < .05$), $r = -.21$ ($p < .01$), $r = -.22$ ($p < .001$)였다. 외상적 사별(사고,

자살, 타살)과 복잡성 사별비에(1차)와 상관은 $r = .16$ ($p < .05$)였다.

사건중심성과 복잡성 사별비에의 관계에서 외상화된 자기체계와 의미재구성의 매개효과

본 연구의 첫번째 가설인, '사건중심성이 복잡성 사별비에에 미치는 영향에서 외상화된 자기체계와 의미재구성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를 Figure 1에 제시하였다. 사별 이후의 적응은 고인과의 관계, 사망원인, 사별이후 기간, 사별을 예상했던 정도 등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 = 150)

	1	2	3	4	5	6	7	8	9	M	SD
1. CG_T1										34.57	19.33
2. CG_T2	.61**									30.89	19.85
3. PTG_T1	.34**	.26**								43.03	15.67
4. PTG_T2	.14	.42**	.53**							41.43	17.09
5. Event centrality	.62**	.54**	.33**	.20*						66.33	15.12
6. Traumatized self-system	.64**	.50**	.12	-.05	.66**					122.35	41.08
7. Meaning reconstruction	.16	.13	.67**	.50**	.24**	.02				32.77	6.66
8. Time since death	-.18*	-.12	-.05	-.08	-.21*	-.22**	-.06			10.67	3.08
9. Expectation of bereavement	-.01	.13	.07	.15	-.06	.01	.07	-.18*		1.84	1.19
10. Traumatic death	.16*	-.03	.01	-.15	.12	.11	-.07	.12	-.47**	.41	.49

Note. CG_T1 = Complicated Grief at Time 1; CG_T2 = Complicated Grief at Time 2; PTG_T1 = Posttraumatic Growth at Time 1; PTG_T2 = Posttraumatic Growth at Time 2; Event centrality, traumatized self-system, and meaning reconstruction were assessed at Time 1; Traumatic death = suicide, homicide, accident.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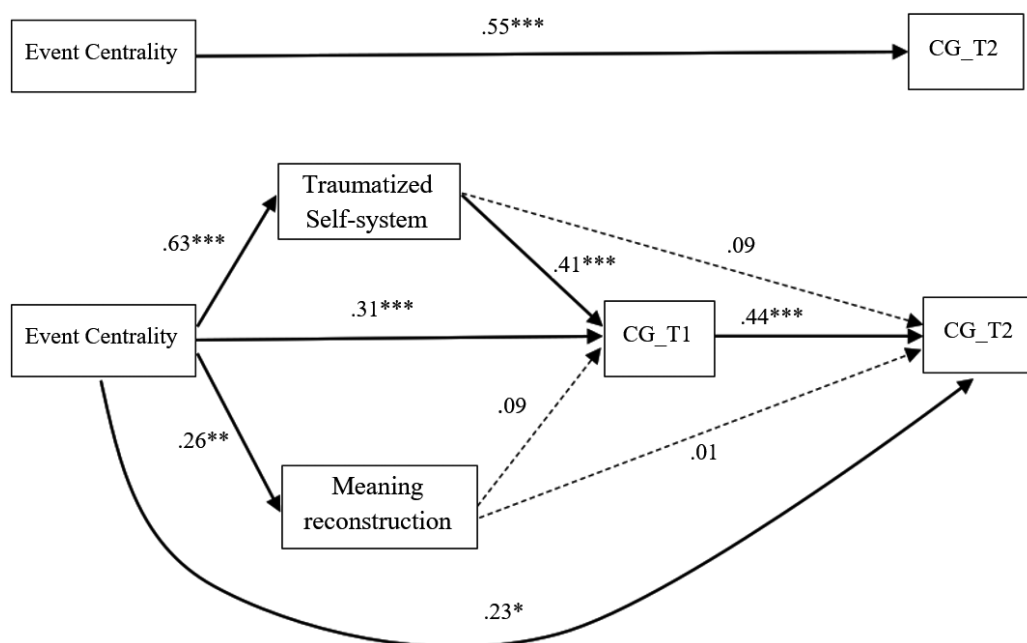


Figure 1. The mediation model for complicated grief.
 Note. CG_T1 = Complicated grief at Time 1; CG_T2 = Complicated grief at Time 2.

에 따라 영향(Stroebe, Schut, & Stroebe, 2007)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상관분석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인 사별기간, 외상적 사별(사고, 자살, 타살)을 통제하고 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사건중심성은 외상화된 자기체계($\beta = .63, p < .001$)와 의미재구성($\beta = .26, p < .01$)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1차 시기의 복잡성 사별비애로 가는 경로에서는 사건중심성($\beta = .31, p < .001$)과 외상화된 자기체계($\beta = .41, p < .001$)는 유의미한 영향이 있었으나, 의미재구성($\beta = .09, n.s.$)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차 시기의 복잡성 사별비애로 가는 경로에서는 사건중심성($\beta = .23, p < .05$)과 1차 시기의 복잡성 사별비애($\beta = .44, p < .001$)는 유의한 영향이 있었고, 외상화된 자기체계($\beta = .09, n.s.$)와 의미재구성($\beta = .01, n.s.$)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사건중심성이 2차 시기의 복잡성 사별비애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beta = .55 (p < .001)$ 였으나 매개변수인 외상화된 자기체계, 의미재구성, 1차 시기의 복잡성 사별비애가 회귀 모형에 투입되면서 2차 시기의 복잡성 사별비애에 대한 사건중심성의 직접효과는 $\beta = .23 (p < .05)$ 로 감소하여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부트스트랩을 통한 간접효과 검증 결과, 사건중심성이 1차 시기의 복잡성 사별비애를 매개로 2차 시기의 복잡성 사별비애에 이르는 경로와 사건중심성이 외상화된 자기체계를 매개로 1차 시기의 복잡성 사별비애를 거쳐 2차 시기의 복잡성 사별비애에 이르는 매개경로가 95%의 신뢰구간에서 매개효과 계수의 상한값과 하한값의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3).

사건중심성과 외상후 성장의 관계에서 의미재구성의 매개효과 및 외상화된 자기체계의 매개효과

본 연구의 두번째 가설인, '사건중심성이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외상화된 자기체계와 의미재구성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를 Figure 2에 제시하였다. 사별관련 변인(사별기간, 외상적 사별)을 통제하고 매개모형을 검증한 결과, 사건중심성은 외상화된 자기체계($\beta = .63, p < .001$)와 의미재구성($\beta = .26, p <$

Table 3. Indirect Effect for Complicated Grief

	β	SE	95%	
			LLCI	ULCI
Event centrality→Traumatized self-system→CG_T2	.05	.07	-.0790	.1780
Event centrality→Meaning reconstruction→CG_T2	.00	.02	-.0444	.0333
Event centrality→CG_T1→CG_T2	.14	.05	.0530	.2558
Event centrality→Traumatized self-system→CG_T1→CG_T2	.12	.05	.0412	.2238
Event centrality→Meaning reconstruction→CG_T1→CG_T2	.01	.01	-.0038	.0306

Note. CG_T1 = Complicated Grief at Time 1; CG_T2 = Complicated Grief at Time 2; LLCI = Lower level confidence interval, ULCI = Upper level confidence interv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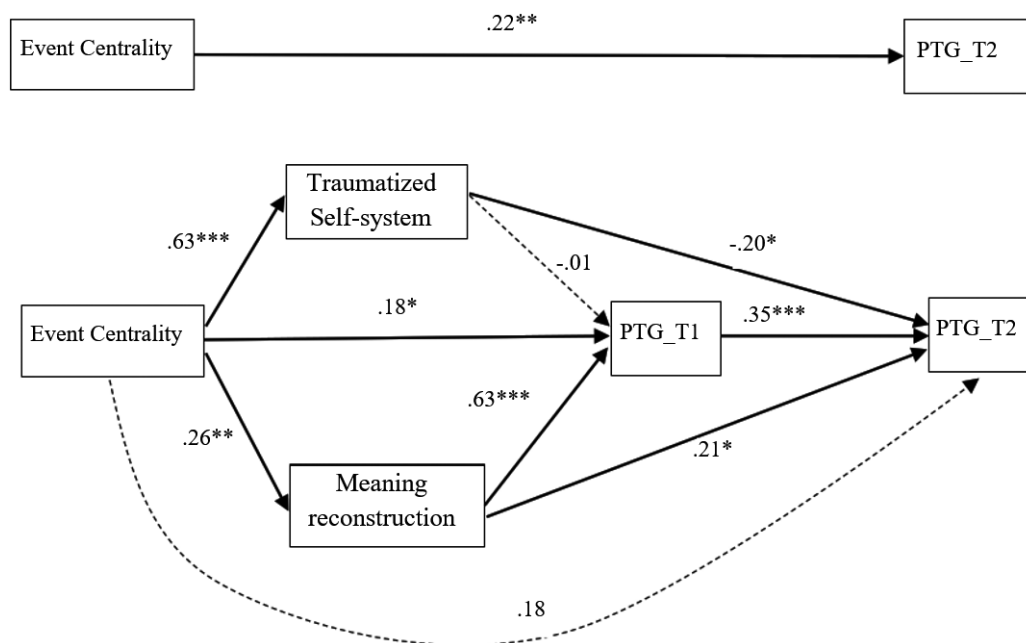


Figure 2. The mediation model for posttraumatic growth.

Note. PTG_T1 = Posttraumatic growth at Time 1; PTG_T2 = Posttraumatic growth at Time 2.

Table 4. Indirect Effect for Posttraumatic Growth

	β	SE	95%	
			LLCI	ULCI
Event Centrality→Traumatized self-system→PTG_T2	-.13	.06	-.2462	-.0190
Event Centrality→Meaning reconstruction→PTG_T2	.05	.03	.0082	.1181
Event Centrality→PTG_T1→PTG_T2	.06	.04	.0056	.1467
Event Centrality→Traumatized self-system→PTG_T1→PTG_T2	.00	.02	-.0470	.0388
Event Centrality→Meaning reconstruction→PTG_T1→PTG_T2	.06	.02	.0124	.1104

Note. PTG_T1 = Posttraumatic growth at Time 1; PTG_T2 = Posttraumatic growth at Time 2; LLCI = Lower level confidence interval, ULCI = Upper level confidence interval.

.01)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1차 시기의 외상후 성장으로 가는 경로에서는 사건중심성($\beta = .18, p < .05$)과 의미재구성($\beta = .63, p < .001$)은 유의한 영향이 있었으나, 외상화된 자기체계($\beta = -.01, p = .91$)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차 시기의 외상후 성장으로 가는 경로에서는 외상화된 자기체계($\beta = -.20, p < .05$), 의미재구성($\beta = .21, p < .05$), 1차 시기의 외상후 성장($\beta = .35, p < .001$)은 유의한 영향이 있었고, 사건중심성($\beta = .18, n.s.$)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차 시기의 외상후 성장에 대한 사건중심성의 직접효과는 $\beta = .22 (p < .01)$ 였으나 매개변수인 외상화된 자기체계, 의미재구성, 1차 시기의 외상후 성장이 투입되면서 2차 시기의 외상후 성장에 대한 사건중심성의 직접효과는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beta = .18, n.s.$)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부트스트랩을 통한 간접효과 검증 결과, 사건중심성이 외상화된 자기체계를 매개로 2차 시기의 외상후 성장에 이르는 경로, 의미재구성을 매개로 2차 시기의 외상후 성장에 이르는 경로, 의미재구성과, 1차 시기의 외상후 성장을 매개로 2차 시기의 외상후 성장에 이르는 경로가 95%의 신뢰구간에서 매개효과 계수의 상한값과 하한값의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기에 부모 사별을 경험한 초기 성인을 대상으로 사건중심성이 복잡성 사별비에 및 외상후 성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외상화된 자기체계와 의미재구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먼저, 예상한 바와 같이 사건 중심성은 복잡성 사별비에와 외상후 성장 모두를 정적으로 예측하여 사별 이후의 긍정 또는 부정적인 심리

적 결과와 모두 연관이 있다는 선행 연구와 일관된 결과가 도출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관계에서 외상화된 자기체계와 의미재구성의 매개효과는 예상과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사건중심성과 복잡성 사별비에의 관계에서 의미재구성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외상화된 자기체계의 매개효과는 1차 시기의 복잡성 사별비에를 매개로만 2차 시기의 복잡성 사별비에를 예측하였다. 반면, 사건중심성과 외상후 성장의 관계에서는 의미재구성과 외상화된 자기체계 모두가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였다. 구체적인 가설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건중심성이 복잡성 사별비에로 가는 경로는 외상화된 자기체계가 부분매개하였으나, 의미재구성의 매개 효과는 기각되어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 사별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정체성을 재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죄책감, 수치심 등의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발달시킨다면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부적응적인 사별 증상을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 외상화된 자기체계는 1차 시기의 복잡성 사별 비에를 매개로 2차 시기의 복잡성 사별비에를 유의하게 예측한 반면, 외상화된 자기체계가 2차 시기의 복잡성 사별 비에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아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단순 상관분석에서 1차 시기에 측정된 외상화된 자기체계는 1차 시기의 복잡성 사별비에와는 .64의 상관을, 2차 시기의 복잡성 사별비에와는 .50의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그럼에도 본 연구의 종단 자료에서 직접 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온 것은 상대적으로 모형에 포함된 다른 유의한 경로의 설명력이 더 높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1차 시기의 외상화된 자기체계와 복잡성 사별비에의 높은 상관으로 인해 이를 통제한 이후 1차 시기의 외상화된 자기체계가 2차 시기의 복잡성 사별비에에 미치는 직접 효과가 상쇄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더불어 사건중심성이 2차 시기의 복잡성 사별비에에 미치는 간접 경로와 직접 경로가 모두 유의하여, 본 연구의 결과는 사건 중심성이 복잡성 사별비에를 장기적으로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사건 중심성이 복잡성 사별비에에 미치는 영향에서 의미재구성의 매개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본 연구 결과만을 기반으로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단순상관분석 결과에서도 의미재구성은 복잡성 사별비에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의미재구성이 외상후 성장과 높은 상관을 보인 것과 대비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의미재구성이 청소년기 부모사별로 인한 복잡성 사별비를 예방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외상후 성장에 도달하는 데 기여하는 변인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더불어 부모사별에 대한 사건

중심성 수준이 얼마나 높은 지 그리고 자기개념과 정체성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느냐가 청소년기에 부모사별을 경험한 성인의 장기적인 부적응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사건중심성이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외상화된 자기체계와 의미재구성이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가설이 지지되었다. 복잡성 사별비에 모델과 달리 사건중심성은 외상후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매개변인을 통해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상화된 자기체계 수준이 낮을수록, 의미재구성 수준이 높을수록 외상후 성장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별 경험 후에 이전보다 성숙한 삶의 태도로 변화하는 데는 의미재구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들(Im & Kwon, 2013; Neimeyer, 2001; C. L. Park & Ai, 2006)처럼, 본 연구의 결과도 부모와 사별한 청소년들이 사별에 대한 의미재구성 과정을 통해 외상후 성장에 이를 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사건중심성은 사별과 관련된 부적응적 증상과 더 큰 관련이 있다면, 의미재구성은 사별 경험 후의 적응 및 심리적 성장과 더 관련이 있는 변인임을 시사한다. H. W. Park과 Ahn (2006)은 외상적인 사건이 개인에게 주관적으로 어떤 경험이었는지가 사건 그 자체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청소년기에 경험한 부모사별에 대해서도 어떻게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불어 시간이 흐를수록 애도의 부적응 경험들은 줄어들 수 있지만 적응적인 경험은 단지 시간이 흐르는 것으로 증가하지 않으며, 의미재구성과 같은 보다 능동적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결과는, 부모나 가족의 죽음에 대해 침묵하거나 회피하기 보다 죽음에 대하여 그리고 그로 인한 변화에 대해 직면하는 것이 사별의 아픔을 딛고 적응과 성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외상화된 자기체계는 부모 사별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사별로 인한 부적응 반응과 외상후 성장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 사별이라는 외상적 경험이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돕는 것이 복잡성 사별비에 수준을 낮추고, 외상후 성장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건중심성과 외상후 성장의 관계에서 외상화된 자기체계의 매개효과는 조심스럽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단순상관분석에서 외상화된 자기체계는 외상후 성장과 유의한 상관이 없었고 외상후 성장 모형에서 1차 시기의 외상후 성장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 가지 가능성은 외상화된 자기체계의 매개효과는 모형에 포함된 의미재구성과 사건중심성의 영향력을 함께 고려했을 때에만 조건적으로 성립되는 경로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의미재구성이 높고 외상화된 자기체계 수준이 낮은 경우에만 장기적으로 외상후 성장에 도달한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외상화된 자기체계가 낮을 때 외상후 성장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외상화된 자기체계 수준이 높을 때는 의미재구성 수준이 높더라도 외상후 성장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외상화된 자기체계와 의미재구성의 상호작용 기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복잡성 사별비애와 외상후 성장은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었고, 사건중심성은 복잡성 사별비애와 외상후 성장 모두와 유의한 정적관계가 있었다. 이는 높은 사건중심성이 외상후 스트레스와 외상후 성장을 예측하는데 있어 중요하다는 선행연구(Berntsen & Rubin, 2006; Boals & Schuettler, 2011)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사별경험을 자신의 정체성과 경험의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높을수록 사별로 인한 부적응적이거나 적응적인 애도 과정 모두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사별사건을 받아들이는 주관적인 관점과 평가인 사건중심성이 애도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이며, 매개변인에 따라 부적응 반응인 복잡성 사별비애와 애도 후 긍정적 결과인 외상후 성장으로 갈 수 있음을 가정한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상실에 대한 이중과정모델(Stroebe & Schut, 2008) 관점에서는 사별의 의미를 인지적, 정서적으로 처리하는 것과 함께 현재의 삶에 집중하고 미래지향적 관점을 갖는 것이 톱니바퀴처럼 잘 어울려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애도과정의 부적응 측면인 복잡성 사별비애와 적응의 결과인 외상후 성장을 같이 살펴보고, 이 두 과정이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생각한다. 다만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서는 사별 이후의 적응과 부적응에 미치는 인지적 처리과정의 영향만을 포함하였고 중요한 다른 측면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기에 이중과정모델을 온전히 적용하여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 및 추후연구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부모사별, 특히 청소년에 부모사별을 경험한 자녀들이 애도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부적응과 외상후 성장 과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양적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사별기간이 길수록 복잡성 사별비애(1차), 사건중심성, 외상화된 자기체계 수준이 낮고, 외상적 사별(사고, 자살, 타살)을 경험할수록 복잡성 사별비애(1차)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사별기간, 나이, 사별의 원인 등과 복잡성 사별비애와의 관계에 대한 결과는 혼재되어 있다(Brent & Melhem, 2012; McClatchey & Wimmer, 2014; Melhem et al., 2011). 특히 본 연구는 대상자 중 다수가 만 25

세 이상이었으며, 사별기간이 6년 이상으로 긴 참여자들이 많았다. 따라서 사별 이후 5년 이내의 짧은 기간 안에 겪는 심리적 부적응과 외상후 성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사별변인들과 복잡성 사별비에, 외상후 성장의 관계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추후 사별기간을 포함한 다양한 사별변인을 포함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둘째, 횡적연구설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짧은 기간이지만 단기종단설계를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이 3개월이기에 시간에 따른 복잡성 사별비에와 외상후 성장의 변화 내용을 알아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종단 연구를 수행하여 시간에 따른 사별 후의 부적응 및 적응 반응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3개월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생활사건의 영향을 확인하지 못하였기에 1차 설문과 2차 설문 간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인지적 변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정서적 변인과 가족 관계를 포함한 사회문화적 변인을 검증하는 것이 연구들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남아있는 양육자의 적응수준과 관계를 중요한 요인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통합적인 관점에서 청소년기의 사별 경험을 다룰 필요가 있다.

외상 경험 후에 경험하는 부적응적인 증상과 외상후 성장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다. 많은 연구자들(Boals & Schuettler, 2011; Currier, Holland, & Neimeyer, 2012)은 외상후 성장에 이르는 것이 곧 부적응적인 증상이 감소하거나 외상후 스트레스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외상후 스트레스를 겪어 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기에 부모와 사별한 대상자들이 경험하는 부적응적인 애도과정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한 나아가 역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발달시키는 것과 사별 경험에 대한 의미재구성을 하는 것이 외상후 성장에 이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임상적 관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부모와 사별한 청소년 및 초기 성인들의 애도를 위한 개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Author contributions statement

Jieun Kwon, graduate student at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ollected and analyzed data, and led manuscript preparation. Sungeun You, professor at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served as the principal investigator of the research and supervised the research process. All authors contributed to conception and design of the work, provided critical feedback, participated in revision of the manuscript, and approved the final submission.

References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DSM-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Bellet, B. W., Neimeyer, R. A., & Berman, J. S. (2018). Event centrality and bereavement symptomatology: The moderating role of meaning made. *Journal of Death and Dying, 78*, 3-23.
- Berntsen, D., & Rubin, D. C. (2006). The Centrality of Event Scale: A measure of integrating a trauma into one's identity and its relation to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4*, 219-231.
- Boals, A., & Schuettler, D. (2011). A double-edged sword: Event centrality, PTSD, and posttraumatic growth.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25*, 817-822.
- Brent, D. A., & Melhem, N. M. (2012). Longitudinal effects of parental bereavement on adolescent developmental competence.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41*, 778-791.
- Calderwood, K. A. (2011). Adapting the transtheoretical model of change to the bereavement process. *Social Work, 56*, 107-118.
- Calhoun, L. G., & Tedeschi, R. G. (2004). The foundation of post-traumatic growth: New considerations. *Psychological Inquiry, 15*, 93-102.
- Calhoun, L. G., Cann, A., & Tedeschi, R. G. (2010). Beyond recovery from trauma: Implication for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Social Issues, 54*, 357-371.
- Cho, M. S., & Lee, Y. H. (2011). A validation study of the Centrality of Event Scale-Korean version.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0*, 763-774.
- Choi, S. J., & Ahn, H. N.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meaning reconstruction in response to loss experience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4*, 323-341.
- Currier, J. M., Holland, J. M., & Neimeyer, R. A. (2012). Prolonged grief symptoms and growth in the first 2 years of bereavement: evidence for a nonlinear association. *Traumatology, 18*, 65-71.
- Ens, C., & Bond, J. B. (2005). Death anxiety and personal growth in adolescents experiencing the death of a grandparents. *Death Studies, 29*, 171-178.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Freeman, S. J. (2005). *Grief and loss: understanding the journey*. Belmont, CA: Cengage Learning.
- Gray, L. B., Weller, R. A., Fristad, M., & Weller, E. B. (2011).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two months after the death of a parent.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35*, 277-283.
- Gehrt, T. B., Berntsen, D., Hoyle, R. H., & Rubin, D. C. (2018). Psychological and clinical correlates of the centrality of event scale: A systema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65*, 57-80.
- Gillies, J. M. (2005). *Meaning reconstruction in response to bereavement: constructing a measure* (Doctoral dissertation). ProQuest

- Dissertations Publishing, 3199469.
- Gillies, J. M., & Neimeyer, R. A. (2006). Loss, grief, and the search for significance: Toward a model of meaning reconstruction in bereavement. *Journal of Constructivist Psychology, 19*, 31-65.
- Groleau, J. M., Calhoun, L. G., Cann, A., & Tedeschi, R. G. (2013). The role of centrality of events in posttraumatic distress and posttraumatic growth.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5*, 477-483.
- Habermas, T., & Bluck, S. (2000). Getting a life: The emergence of the life story in adolescent. *Psychological Bulletin, 126*, 748-769.
- Harrison, L., & Harrington, R. (2001). Adolescents' bereavement experiences: Prevalence, association with depressive symptoms and use of services. *Journal of Adolescence, 24*, 159-169.
- Hayslip, B., Pruet, J. H., & Caballero, D. M. (2015). The "how" and "when" of parental loss in adulthood: Effect on grief and adjustment. *Omega-Journal of Death and Dying, 71*, 3-18.
- Hogan, N. S., & Schmidt, I. A. (2002). Testing grief to personal growth model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Death Studies, 26*, 615-635.
- Im, S. Y., & Kwon, S. M. (2013). The influence of cognitive strategies and belief systems on posttraumatic growth following relational los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2*, 567-588.
- Jang, J. Y., & Ahn, H. N. (201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raumatized self-system scale.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3*, 369-385.
- Kim, S., & You, S. (2019). Are coping flexibility, forward focus coping, and trauma focus coping protective for complicated grief?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19*, 37-58.
- Levi-Belz, Y. (2019). With a little help from my friends: A follow-up study on the contribution of interpersonal characteristics to posttraumatic growth among suicide-loss survivors.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11*, 895-904.
- Maier, E. H., & Lachman, M. E. (2000). Consequences of early parental loss and separation for health and well-being in midlif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 183-189.
- Mallon, B. (2011). *Working with Bereaved Children and Young People*. London, UK: SAGE.
- McClatchey, I. S., & Wimmer, J. S. (2014). Coping with parental death as seen from the perspective of children who attended a grief camp. *Qualitative Social Work, 13*, 221-236.
- Melhem, N. M., Porta, G., Shamseddeen, W., Payne, M. W., & Brent, D. A. (2011). Grief in children and adolescents bereaved by sudden parental death.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8*, 911-919.
- Michael, C., & Cooper, M. (2013). Post-traumatic growth following bereavement: 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Counseling Psychology Review, 28*, 18-33.
- Neimeyer, R. A. (2000). Searching for the meaning of meaning: Grief therapy and the process of reconstruction. *Death Studies, 24*, 541-558.
- Neimeyer, R. A. (2001). *Meaning reconstruction and the experience of los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Park, C. L., & Ai, A. L. (2006). Meaning making and growth: new directions for research on survivors of trauma. *Journal of Loss and Trauma, 11*, 389-407.
- Park, H.W., & Ahn, H. (2006). The Effects of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Spirituality, and Rumination on Posttraumatic Growth. *Korea Journal of Counseling, 7*, 201-214.
- Prigerson, H. G., Maciejewski, P. K., Reynolds, C. F., Bierhals, A. J., Newsom, J. T., Fasiczka, A., . . . Miller, M. (1995). Inventory of complicated grief: A scale to measure maladaptive symptoms of loss. *Psychiatry Research, 59*, 65-79.
- Salloum, A., Bjoerke, A., & Johnco, C. (2019). The associations of complicated grief, depression, posttraumatic growth, and hope among bereaved youth. *Journal of Death and Dying, 79*, 157-173.
- Schaefer, J. A., & Moor, R. H. (2002). Bereavement experiences and personal growth. In M. S. Stroebe, R. O. Hansson, W. Stoebe, & H. Schul (Eds.), *Handbook of bereavement research consequences, coping and care* (pp. 145-167).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ong, S. H., Lee, H. S., Park, J. H., & Kim, K. H. (2009).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4*, 193-214.
- Stroebe, M. S., & Schut, H. (2008). The dual process model of coping with bereavement: Overview and update. *Grief Matter: The Australian Journal of Grief and Bereavement, 11*, 4-10.
- Stroebe, M. S., Schut, H., & Stroebe, W. (2007). Health outcomes of bereavement. *Lancet, 370*, 1960-1973.
- Taku, K., Calhoun, L. G., Cann, A., & Tedeschi, R. G. (2006). The role of rumination in the coexistence of distress and posttraumatic growth among bereaved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Death Studies, 32*, 428-444.
- Tedeschi, R. G., & Calhoun, L. G. (1995). *Trauma and transformation: Growing in the aftermath of suffering*. Thousand Oaks, CA: Sage.
- Tedeschi, R. G., & Calhoun, L. G. (1996).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Measuring the positive legacy of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 455-471.
- Tedeschi, R. G., Calhoun, L. G., & Cann, A. (2007). Evaluating resource gain: Understanding and misunderstanding posttraumatic growth. *Applied Psychology, 56*, 396-406.
- Worden, J. W., & Silverman, P. R. (1996). Parental death and the adjustment of school age children. *Omega, 33*, 91-102.

국문초록

사건중심성이 청소년기 부모사별을 경험한 초기 성인의 복잡성 사별비애와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외상화된 자기체계와 의미재구성의 매개효과

권지은·유성은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청소년기에 부모와 사별한 초기 성인의 복잡성 사별비애와 외상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변인들을 탐색하였다. 특히 사건중심성이 복잡성 사별비애와 외상후 성장에 이르는 경로에서 외상화된 자기개념과 의미재구성의 매개효과를 3개월 단기 중단 설계를 통해 검증하였다. 청소년기에 부모와 사별한 만 19세에서 29세의 성인들을 온라인을 통해 모집하고 설문을 실시하였다. 1차 설문에는 200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150명이 3개월 후에 실시된 2차 설문에 참여하였다. 연구 결과, 예측한 바와 같이 사건 중심성은 1차와 2차에 측정된 복잡성 사별비애와 외상후 성장 모두와 정적 상관이 있었다. 사건중심성이 복잡성 사별비애에 이르는 매개모델에서 외상화된 자기체계는 1차 복잡성 사별비애에 대해 매개효과가 있었지만, 2차 복잡성 사별비애에 대해서는 외상화된 자기체계와 의미재구성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사건중심성이 외상후 성장에 이르는 매개모델에서 외상화된 자기체계와 의미재구성은 완전 매개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사건중심성은 복잡성 사별비애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며, 외상후 성장에 대해서는 매개변수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외상화된 자기체계와 의미재구성은 사별의 부적응적 반응인 복잡성 사별비애를 낮추기 보다 적응적 반응인 외상후 성장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변인임을 시사한다.

주요어: 복잡성 사별비애, 외상후 성장, 부모사별, 단기중단연구